

우리 문화의 중심에 한자어가 있다

權 五 堅
시인·북아공파35世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친지·동창생·직장 친구의 혼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예식장을 자주 찾게 된다. 축의금 봉투에는 ‘權五堅’이란 이름을 한자로 큼직하게 또박또박 적는다. 언젠가 한번은 30대쯤 되어 보이는 축의금 접수자가 축의금 대장에 이들 이름을 한글로 옮겨 적는 것을 목격하고는 실망한 일이 있다. 내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나직한 목소리로 일러주자 끝자가 ‘신 자 아닙니까 하고 묻더니,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현’ 자이시지요 하기에 ‘굳을 견’ 자라고 웃으면서 대답했다.

대부분 하객은 축의금 봉투에 한자로 적는 것이 관례다. 그후 혼주를 만날 기회가 있었으므로 평소 친한 사이기에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낯선 이름이 상당수 있어 궁금하였다고 하면서 당황하는 빛이었다.

내 동생의 이름은 출생 당시 안동권씨 35세 항렬에 따라 집안 어르신인 權五鐵로 지었다. 몇 년이 지나 호적등본상 끝자가 銖(명탕구리 수 또는 저울 눈수)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는

집안 식구들도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출생신고 당시 鐵자의 약자인 鉄로 기재하여 보냈으나 호적 담당직원이 이를 銖자로 잘못 보아 기록한 것으로 짐작되었다. 이름을 고치려면 민사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이름은 독립된 인격체를 형성하는 고유명사다. 따라서 평소에 이름을 올바르게 정중하게 부르고 쓰는 것이 예의일 것이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임을 자처한다. 종교·경제·철학·교육 등 전반에 걸쳐 크게 발전한 원인 중 하나로 문자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 한자가 전래된 것은 BC 220년쯤으로 한사군의 설치 시기보다 100여년 앞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기식誓記式 표기·이두吏讀·향찰鄉札·구결口訣로 불리는 문자생활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어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에서 연유한 것이다.

국어사전에서 단어의 70% 이상이 한자어漢字語로 되어 있어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자는 언어가 갖는 사상과 감정의 전달기능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정서와 의미 등 심층구조적 기능도 갖고 있다.

어화둥둥 내 사랑/청사초롱 자질하게 켜 놓고/참을 수 없는 욕정의 덩굴손으로/어지러운 세월로 틀어올리는/저 낮뜨거운 일심동체一心同體여/열락과 아픔이 함께 고이는/금슬지락琴瑟之樂의 격렬한 합궁합궁/몸을 엮고 사는 일이 그리 좋은지

위의 시는 임영조 시인의 ‘등나무 아래서’의 일부이다. 연인 또는 부부간 절정에 이른 사랑 표현의 모습을 등나무에 비견하여 의인화, 형상화한 시적 발상이다. 사랑의 본질은 몸과 마음이 하나이어야 한다는 전제로 일심동체란 어구가 제격에 맞고 본능적인 색정을 아름답게 승화시켜 금슬지락·합궁 등으로 묘사한 대목은 한자어의 정서와 시적인 함축미를 결들임으로써 독자를 감동시키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한자는 또한 언어를 기록하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도덕성과 지혜, 철학성을 지닌 인격형성의 중심체 역할을 한다.

인자불우仁者不憂는 논어의 한 구절이다. 어진 사람은 걱정이 없다고 하였으니 도덕성을 일깨우고 인격체를 형성하는 지혜를 얻는다. ‘仁’자는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행하는 총체적인 행동규범이다. 겸손과 미덕, 아량과 이해, 상식과 원칙은 ‘仁’자와 연관이 깊다. ‘仁’자는 ‘人+二’로 분석된다. 人은 사람이고 二는 짝수의 상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仁’이란 인간 세계에서 상대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인간관계는 바로 삶의 근본 이치임을 인식할 수가 있다. 한자는 우리 문자언어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와 민족문화의 뿌리를 형성하였고 또한 조어력造語力이 강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를 생성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가령 ‘休’자는 다른 한자의 앞뒤에 배합되어 여러 어휘의 뜻을 나타낸다.

公休·無休·連休·産休
休日·休暇·休息·休職

나는 평소 시창작시에 한자의 조어력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대목에 가장 의미가 접근하는 낱말을 찾아 문장을 구성하는 습관을 익혀왔다. 한자와 한글을 교직할 때 문장의 무늬가 우아하고 의미 전달이 빠르고 주제가 선명함을 느낀다. 표의문자와 표음문자의 조화라고 할까.

실제 고사를 근거로 하여 교훈이나 삶의 덕목으로 고사성이 만들어져 세상에 널리 전파되고 있다. 국학아세曲學阿世라는 성어가 있다. 평소에 자기 신조와 소신, 철학을 굽혀

세상에 아첨함을 뜻한다. 전한前漢 시대 무제武帝는 원고생袁固生과 공손홍公孫弘이라는 두 학자를 동시에 중용하였으나 나이가 젊은 공손홍은 늙어 빠진 영감이라고 무시하며 원고생을 대했고 원고생은 ‘공손자는 부디 자기가 믿는 학설을 구부려 세상의 속물에게 아부하지 말게나公孫子務正學以言無曲學以阿世’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공손홍은 절조를 굽히지 않는 원고생의 훌륭한 인격과 풍부한 학식에 감동되어 크게 뉘우치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고사가 전해진 데서 이성어가 생겼다. 얕은 지식과 인맥·학연·혈맥을 동원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고 아첨으로 출세하려는 사람들의 정곡을 찌르는 말이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라는 시대적인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동양문화권의 근간인 한자를 멀리할 수는 없다. 동양의 윤리도덕·가치관·철학이 담긴 경서는 모두 한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를 두루 섭렵하지 아니하고는 세계화의 중심에 접근하기가 무리일 것이다.

문명충돌론을 주창한 미국의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서구문명에 맞설 가장 강한 세력으로 동아시아 유교문명권을 꼽았다. 유교문명의 꽃은 바로 한자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배어 언어화된 한자는 한글과 더불어 찬란한 민족문화의 꽃을 피울 것이기에 나는 더욱 한자를 즐겨 쓸 것이다.

다. 특히 화몽집본은 필사 시기나 상태, 문장 표현 양상 등 여러 측면에서 선본選本の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소 교수는 그 논문의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강로전은 1618년 누르하치의 난 때 明의 요청으로 조선군의 도원수가 되어 원병援兵을 떠나 후금에 투항하였다가 1627년 귀국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강홍립의 행적을, 송명배호崇明排胡의 시대적 분위기에서 국가와 민족을 저버린 비열한 반역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작자와 창작 시기에 대해서는 강홍립이 사망한 3년 후인 1630년에 권척權弼(1599 - 1667)이 지은 것으로 밝혀져 있다. 권척은 권필의 서질庶姪로서 안여식전安汝式傳의 작가이기도 한데 그는 각각 전계소설傳系小說과 전기소설傳奇小說에 해당하는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허균許筠·조위한趙緯韓·권필權譯로 대표되는 17세기 소설가 그룹의 창작 경향을 뚜렷

하게 계승하고 있다. 강로전은 이후 곧바로 국역되고 다시 한역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당대의 소설 향유에 있어서의 역동적인 국면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서 17세기 소설사의 존재양태를 파악함에 있어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강로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박희병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우리 소설사에서 최초로 부정적 주인공을 창안한 사례로 작품을 주목하면서 작자의 창작 시기, 양식적 특성 등의 제반 사항에 관해 종합적인 고찰을 행하였다. 이후 정한국은 16~17세기 전란 체제를 기록한 실기류와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작품의 형성과정을 파악하였으며, 특히 병자호란 관련 실기류 중 대표작인 ‘강도록江都錄’과의 친연성親緣性和 차이점을 통해 작품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권혁래權赫來는 역사소설의 관점에서 강로전의 소설적 성격을 점검한 바 있다.

이상의 연구성과를 통해서 강로전의 작품 성격과 소설사적 위상에 관련된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위의 논의는 모두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강로전의 이본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지닌다. 더구나 최근 화몽집花夢集과 동사잡록, 그리고 자저 소장 강로전의 존재가 새롭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본연구는 향후 강로전 연구에 있어서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작업으로 요청된다. 본고의 목표는 현재까지 알려진 이본들에 대한 상세한 비교고찰을 통해 그 계열적 성격을 밝히고 선본을 확정함으로써 강로전 연구의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 교수가 위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5종의 강로전 이본은 모두 한문필사본으로 다음과 같다.

①이건李健(1614 - 1662)의 규창유고葵窓遺稿 소재 강로전. 규창유고 권12에 실려 있는데 강로전 제목 밑에 작은 글씨로 ‘유언문전세자 공역지有諺文傳世者公譯之(언문으로 세상에 전하던 것을 공이 — 한문으로 — 번역한 것이다)’라고

하여 언역본諺譯本으로 유통되던 작품을 다시 한역漢譯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전체 22면, 매면 20행, 매행 18자로 되어 있다.

②김일성종합대학 소장 화몽집花夢集 소재 강로전. 화몽집은 매면 12~14행, 매행 20~24자 내외, 도합 259면으로 되어 있는 한문필사본이다. 주생전周生傳·운영전雲英傳·영영전·동선전·몽유달천록·원생몽유록·피생명몽록·금화령회(금화사몽유록)·강로전의 순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중 강로전은 30면이 조금 못되는 분량으로, 마지막 몇 행이 인멸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초서체의 달필로 필사되어 있다.

③유한준俞漢騫(1732 - 1811)의 자저自著 소작 ‘강홍립전姜弘立傳’. 자저는 유한준의 52세 때인 1783년에 그동안의 시문을 모아 시 13권, 문文 15권, 총 28권으로 정리하고, 이후 1787년에 다시 늘어난 작품을 추가하여 29권15책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홍립전은 권14에 약 12면 정도의 분량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매면 18행, 매행 20자

로 되어 있다.

④동사잡록東史彙錄 소재 강로전. 동사잡록은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이 동사강목東史綱目을 찬술하면서 모은 자료를 토대로 하여 새로이 엮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16면, 매면 16행, 매행 32~36자 정도로 되어 있는데 행초行草가 뒤섞여 판독이 쉽지 않다.

⑤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강로전. 이 자료는 원래 강원도 강릉의 최기식崔祺植이라는 분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를 1927년 조선사편수회에서 필사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 전체 46면, 매면 10행, 매행 20자 가량으로 되어 있다.

이들 다섯 가지 이본 가운데 국편본과 화몽집본 및 동사잡록본은 서로간에 자구가 다르게 많지만 전체 내용과 구체적 서술, 문장과 단어까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편본에 오탈자와 구절 탈락이 많다. 그래서 소인호 교수는 국편본과 화몽집본 및 동사잡록본과의 대비를 통해 선본을 확정하고 원작의 면모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하고 있다.

<權五燾>